

---

# I. 경제금융 동향

---

## 1. 세계경제

- 2017년 4/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경기회복세가 지속됨
- 2017년 4/4분기 미국(2.5%)과 중국(1.6%), 일본(1.6%), 유로지역(2.4%)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미국 0.7%p, 중국 0.2%p, 일본 0.8%p, 유로지역 0.2%p)함
  - 미국은 순수출 감소, 중국은 고정자산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일본은 내수 중심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2017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미국과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0.1 상승한 100.1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100.1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은 0.1 하락한 99.2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 둔화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4.7%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7%를 기록함
- 국제유가(두바이 61.1달러/배럴, WTI 57.4달러/배럴)와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187.2)은 동반 상승함
- 2017년 4/4분기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영국도 중앙은행(BOE)의 금리인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함
- 세계경제는 미국의 세제 개편 등 확장적 재정정책 및 세계 실업률 하락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4/4분기 미국, 중국,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하락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한 2.5%(연율)를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는 고정자산투자 감소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6%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내수 중심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 감소로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1.6%(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2.4%(연율)를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sup>1)</sup>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세계 <sup>1)</sup>   | n.a. |     | n.a. |     | 3.2 | n.a. |     | n.a. |     | 3.8 |
| 선진국 <sup>1)</sup>  | 1.6  |     | 2.1  |     | 1.7 | 2.3  |     | 2.8  |     | 2.3 |
| 신흥국 <sup>1)</sup>  | 4.4  |     | 4.2  |     | 4.4 | 5.3  |     | 5.3  |     | 4.8 |
| 미국 <sup>2)</sup>   | 0.6  | 2.2 | 2.8  | 1.8 | 1.5 | 1.2  | 3.1 | 3.2  | 2.5 | 2.3 |
| 중국 <sup>3)</sup>   | 1.3  | 1.9 | 1.8  | 1.7 | 6.7 | 1.4  | 1.9 | 1.8  | 1.6 | 6.9 |
| 일본 <sup>4)</sup>   | 2.7  | 1.3 | 0.9  | 1.1 | 0.9 | 1.9  | 2.4 | 2.4  | 1.6 | 1.7 |
| 유로지역 <sup>5)</sup> | 2.1  | 1.4 | 1.6  | 2.6 | 1.8 | 2.5  | 3.0 | 2.8  | 2.4 | 2.3 |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 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8,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2)

3) 중국 국가통계국(2018, 1)

4) 일본 내각부(2018, 3)

5) Eurostat(2018, 3)

■ 2017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sup>1)</sup>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로 지역의 상승세로 전분기 대비 0.1 상승한 100.1을 기록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1 상승하여 각각 99.8, 100.6을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1로 3분기 동안 변화가 없음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1 하락하여 99.2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sup>1)</sup>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세계 <sup>2)</sup>  | 99.4  | 99.4 | 99.6 | 99.7 | 99.5 | 99.8  | 99.9  | 100.0 | 100.1 | 99.9  |
| 선진국 <sup>3)</sup> | 99.6  | 99.5 | 99.6 | 99.8 | 99.6 | 99.9  | 100.0 | 100.1 | 100.1 | 100.0 |
| 미국                | 99.1  | 99.0 | 99.1 | 99.4 | 99.1 | 99.7  | 99.7  | 99.7  | 99.8  | 99.7  |
| 유로지역              | 100.1 | 99.9 | 99.8 | 99.9 | 99.9 | 100.1 | 100.3 | 100.5 | 100.6 | 100.4 |
| 일본                | 99.7  | 99.6 | 99.6 | 99.9 | 99.7 | 100.0 | 100.1 | 100.1 | 100.1 | 100.1 |
| 중국                | 99.4  | 99.5 | 99.6 | 99.5 | 99.5 | 99.4  | 99.3  | 99.3  | 99.2  | 99.3  |

주: 1) 2007년 1월=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신흥국의 무역규모 증가율 둔화로 인해 4/4분기 4.7%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한 4.9%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4.5%로 전분기보다 2.0%p 하락함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sup>1),2)</sup>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세계  | 0.7  | 1.9 | 1.2 | 2.2 | 1.5 | 3.9  | 4.3 | 5.1 | 4.7 | 4.5 |
| 선진국 | 1.5  | 1.6 | 1.6 | 1.8 | 1.6 | 2.2  | 3.6 | 4.2 | 4.9 | 3.8 |
| 신흥국 | -0.5 | 2.2 | 0.6 | 2.7 | 1.3 | 6.4  | 5.3 | 6.5 | 4.5 | 5.7 |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7%를 기록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5.0%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8.9, 7.7 상승한 61.1, 57.4이고, CRB 상품지수<sup>2)</sup>는 7.8 상승하여 187.2를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 구분  |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1)</sup> (%) |     |     |     |     | 구분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sup>2)</sup> |       |       |       |       |
|-----|-----------------------------|-----|-----|-----|-----|------------------------|----------------------------|-------|-------|-------|-------|
|     |                             |     |     |     |     |                        |                            |       |       |       |       |
|     | 2017                        |     |     |     |     |                        | 2017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 1/4                        | 2/4   | 3/4   | 4/4   | 연간    |
| 세계  | 4.0                         | 3.7 | 3.6 | 3.7 | 3.9 | 두바이 현물지수               | 52.7                       | 48.8  | 52.2  | 61.1  | 53.7  |
| 선진국 | 1.9                         | 1.6 | 1.7 | 1.7 | 1.7 | WTI 현물지수               | 52.5                       | 47.9  | 49.7  | 57.4  | 51.9  |
| 신흥국 | 5.4                         | 5.0 | 4.8 | 5.0 | 5.3 | CRB 상품지수 <sup>2)</sup> | 189.9                      | 179.5 | 179.4 | 187.2 | 184.0 |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 가. 미국경제

- 2017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2.5%를 기록함
  - 민간소비(3.8%)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고 민간투자(3.5%)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수입 증가율(14%)이 수출 증가율(7.1%)을 크게 앞서 순수출이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2.5%)과 소비자신뢰지수(126.0)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2.0%)과 설비가동률(77.5), 경기선행지수(106.5)는 전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8.7)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실업률(4.1%)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66만 2천 명)는 전분기보다 다소 증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1%)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5%)은 모두 상승함
- 2017년 12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1.81%, 10년물 2.37%)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2.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 재화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3.8%를 기록함<sup>3)</sup>
  -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8%p 하락한 3.5%를 나타냄
  -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5%p 상승하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7%p 상승하여 순수출이 감소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2.2%p 상승한 2.9%를 기록함

3) 남정옥·김성택(2018. 1. 27), “미국 '17년 4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 GDP | 0.6  | 2.2  | 2.8  | 1.8  | 1.5  | 1.2  | 3.1  | 3.2  | 2.5  | 2.3 |
| 민간소비   | 1.8  | 3.8  | 2.8  | 2.9  | 2.7  | 1.9  | 3.3  | 2.2  | 3.8  | 2.7 |
| 재화     | 2.1  | 6.0  | 3.2  | 4.7  | 3.7  | 0.7  | 5.4  | 4.5  | 7.5  | 3.8 |
| 서비스    | 1.7  | 2.8  | 2.7  | 2.1  | 2.3  | 2.5  | 2.3  | 1.1  | 2.1  | 2.2 |
| 민간투자   | -4.0 | -2.7 | 2.4  | 8.5  | -1.6 | -1.2 | 3.9  | 7.3  | 3.5  | 3.2 |
| 설비     | -4.0 | 3.3  | 3.4  | 0.2  | -0.6 | 7.2  | 6.7  | 4.7  | 6.6  | 4.7 |
| 주택     | 13.4 | -4.7 | -4.5 | 7.1  | 5.5  | 11.1 | -7.3 | -4.7 | 13.0 | 1.8 |
| 수출     | -2.6 | 2.8  | 6.4  | -3.8 | -0.3 | 7.3  | 3.5  | 2.1  | 7.1  | 3.4 |
| 수입     | -0.2 | 0.4  | 2.7  | 8.1  | 1.3  | 4.3  | 1.5  | -0.7 | 14.0 | 3.9 |
| 정부지출   | 1.8  | -0.9 | 0.5  | 0.2  | 0.8  | -0.6 | -0.2 | 0.7  | 2.9  | 0.1 |

주: 전분기 대비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2), BEA

## 〈소비부문〉

##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4%p 상승한 2.5%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5.7 상승한 126.0을 기록함

## ■ 2017년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주택가격지수는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7%p 상승한 7.2%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1.5 상승한 204.1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소매판매 증가율 <sup>1)</sup> (%) | -0.1  | 1.5   | 0.9   | 1.3   | 2.9   | 1.4   | 0.3   | 1.1   | 2.5   | 4.6   | 2.6   | -0.1  |
|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 96.0  | 94.8  | 100.7 | 107.8 | 99.8  | 117.5 | 118.1 | 120.3 | 126.0 | 120.5 | 124.3 | 130.8 |
| 신규주택착공호수 <sup>3)</sup> (%) | 2.6   | 0.4   | -0.7  | 8.6   | 6.3   | -0.9  | -5.7  | 0.5   | 7.2   | 2.6   | 9.9   | -7.0  |
| 주택가격지수 <sup>4)</sup>       | 183.2 | 188.2 | 191.3 | 191.9 | 188.7 | 193.9 | 198.9 | 202.6 | 204.1 | 199.9 | 205.1 | n.a.  |

주: 1) 계절조정,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 1=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상승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 지수(PMI)<sup>4)</sup>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3%p 상승한 2.0%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1.3 상승한 77.5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58.7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2.1 상승한 106.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산업생산 증가율 <sup>1)</sup> (%) | -0.3 | -0.2 | 0.2   | 0.2   | -1.2  | 0.4   | 1.4   | -0.3  | 2.0   | 2.0   | -0.3  | 1.1   |
| 설비가동률 <sup>2)</sup>        | 75.8 | 75.7 | 75.8  | 75.8  | 75.7  | 75.8  | 76.6  | 76.2  | 77.5  | 76.5  | 77.4  | 78.1  |
| ISM제조업PMI                  | 49.5 | 51.4 | 51.4  | 53.2  | 51.4  | 56.6  | 55.8  | 58.7  | 58.7  | 57.4  | 59.1  | 60.8  |
| 경기선행지수 <sup>3)</sup>       | 99.2 | 99.7 | 100.3 | 100.8 | 100.0 | 102.2 | 103.3 | 104.4 | 106.5 | 104.1 | 108.0 | 108.7 |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07=100

3) 2016=100

자료: Bloomberg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수임

## 〈고용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4.1%를 기록하여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과 유사하며, 포괄적 실업률은 8.0%로 전분기 대비 0.5%p 하락함<sup>5)</sup>
  - 비농업취업자는 66만 2,000명으로 전분기보다 23만 7,000명이 증가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3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0,000명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2.1%이며,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1%p 상승한 1.8%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하였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1%로 0.3%p 상승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실업률 <sup>1)</sup>          | 4.9  | 4.9  | 4.9  | 4.7  | 4.9   | 4.7  | 4.3  | 4.3  | 4.1  | 4.4   | 4.1  | 4.1  |
| 포괄적 실업률(u-6) <sup>2)</sup> | 9.8  | 9.7  | 9.7  | 9.3  | 9.6   | 9.1  | 8.5  | 8.5  | 8.0  | 8.5   | 8.2  | 8.2  |
| 비농업취업자 증감 <sup>3)</sup>    | 59.5 | 49.3 | 76.4 | 49.2 | 234.4 | 53.2 | 56.9 | 42.5 | 66.2 | 218.8 | 239  | 313  |
| 실업수당 청구자 수 <sup>4)</sup>   | 27.2 | 26.8 | 25.8 | 25.3 | 26.3  | 24.6 | 24.2 | 24.9 | 23.9 | 24.4  | 23.5 | 22.1 |
|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5)</sup>    | 1.1  | 1.0  | 1.1  | 1.8  | 1.3   | 2.5  | 1.9  | 1.9  | 2.1  | 2.1   | 2.1  | 2.2  |
|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5)</sup> | 2.2  | 2.2  | 2.2  | 2.1  | 2.2   | 2.2  | 1.8  | 1.7  | 1.8  | 1.9   | 1.8  | 1.8  |
| 생산자물가 상승률 <sup>6)</sup>    | -1.8 | -1.9 | -1.3 | 1.0  | -1.0  | 3.5  | 3.0  | 2.8  | 3.5  | 3.2   | 3.0  | 2.7  |
|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sup>6)</sup> | 1.6  | 1.6  | 1.3  | 1.6  | 1.5   | 1.7  | 1.9  | 1.8  | 2.1  | 1.9   | 1.9  | 1.9  |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3) 전분기 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 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Bloomberg

5)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 〈국채금리〉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1.81%, 10년물, 2.37%)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31bp 상승한 1.81%,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3bp 상승한 2.37%임
  - 2017년 12월 FOMC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고 이와 같은 통화정책이 견조한 고용시장을 뒷받침할 것이라 명시함<sup>6)</sup>
    - FOMC는 고용시장에 대해 “허리케인으로 고용자 수는 감소했다”에서 “허리케인에 의한 영향을 평균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증가는 견조했다”고 평가를 수정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평가에서 “허리케인 피해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표현을 삭제함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국채 3년물  | 1.02 | 0.91 | 0.84 | 1.23 | 1.00 | 1.51 | 1.46 | 1.50 | 1.81 | 1.57 | 2.14 | 2.35 |
| 국채 10년물 | 1.92 | 1.74 | 1.56 | 2.13 | 1.84 | 2.44 | 2.26 | 2.24 | 2.37 | 2.33 | 2.58 | 2.86 |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6) 김윤경 · 권도현 · 김효진(2017. 12. 14), “[12월 FOMC] 견고한 고용시장 등으로 금리인상”, 국제금융센터

## 나. 중국경제

- 2017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6%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중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9.9%)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122.6)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6.2%)과 구매자관리지수(51.7)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은 소폭 상승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5.9%)은 하락함
- 2017년 4/4분기 국제금리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6%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증가율보다 0.7%p 하락한 7.2%를 기록함
    - 제조업 투자 부진 영향으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임<sup>7)</sup>
  -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3.2%p 상승한 9.6%를 나타냄<sup>8)</sup>
    -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 대(對) 선진국과 신흥국 수출 모두 증가함
  - 수입 증가율은 13.1%로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함

7) 김성택·남경옥(2017. 12. 20), “17년 중국경제 동향 및 ’18년 전망”, 국제금융센터

8) 자본시장연구원(2018. 3), 『자본시장리뷰 2018년 봄호』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실질 GDP <sup>1)</sup> | 1.3<br>(6.7) | 1.9<br>(6.7) | 1.8<br>(6.7) | 1.7<br>(6.8) | 6.7  | 1.4<br>(6.9) | 1.9<br>(6.9) | 1.8<br>(6.8) | 1.6<br>(6.8) | 6.9  | n.a.              | n.a. |
| 고정자산투자 <sup>2)</sup> | 10.5         | 9.7          | 8.1          | 8.2          | 9.0  | 9.1          | 8.7          | 7.9          | 7.2          | 8.1  | 7.9 <sup>3)</sup> |      |
| 수출 증가율 <sup>4)</sup> | -11.9        | -6.3         | -6.9         | -5.2         | -7.6 | 6.5          | 8.1          | 6.4          | 9.6          | 7.7  | 11.2              | 44.5 |
| 수입 증가율 <sup>4)</sup> | -13.9        | -6.9         | -4.1         | 2.3          | -5.6 | 25.3         | 14.1         | 14.4         | 13.1         | 16.7 | 36.8              | 6.3  |

주: 1) 전분기 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

4)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8. 1); Bloomberg

## 〈소비부문〉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9.9%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6.6 상승한 122.6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소매판매 증가율 <sup>1)</sup> (%) | 10.5  | 10.2  | 10.5  | 10.6  | 10.4  | 10.9  | 10.8  | 10.3  | 9.9   | 10.4  | n.a.  | n.a. |
| 소비자신뢰지수                    | 102.8 | 101.2 | 105.7 | 108.1 | 104.4 | 112.0 | 114.8 | 116.0 | 122.6 | 116.3 | 122.3 | n.a. |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모두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6.2%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1.7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2016년보다 1.3 상승했지만, 4/4분기 중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됨<sup>9)</sup>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산업생산 증가율 <sup>1)</sup> (%) | 6.8  | 6.1  | 6.1  | 6.1  | 6.2  | 7.6  | 6.9  | 6.3  | 6.2  | 6.6  | n.a. | n.a. |
| 제조업PMI <sup>2)</sup>       | 49.5 | 50.1 | 50.2 | 51.4 | 50.3 | 51.6 | 51.4 | 51.8 | 51.7 | 51.6 | 51.3 | 50.3 |

주: 1)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sup>10)</sup>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하락함<sup>11)</sup>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1.8%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건설 관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0.3%p 하락하여 5.9%를 기록함

9) 김성택·남경옥(2017. 12. 20), “17년 중국경제 동향 및 ’18년 전망”, 국제금융센터

10)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11) 자본시장연구원(2018. 3), 『자본시장리뷰 2018년 봄호』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 지표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 2.1  | 1.7  | 2.2 | 2.0  | 1.4  | 1.4 | 1.6 | 1.8 | 1.6 | 1.5  | 2.9 |
| 생산자물가 상승률 | -4.8 | -2.9 | -0.8 | 3.3 | -1.3 | 7.4  | 5.8 | 6.2 | 5.9 | 6.3 | 4.3  | 3.7 |

주: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 〈국채금리 및 환율〉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9bp 상승한 3.95%, 국채 10년물 금리는 2bp 상승한 4.8%임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0.87% 하락한 6.613위안/달러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국채 3년물  | 3.90  | 3.34  | 2.86  | 3.25  | 3.34  | 4.16  | 4.16  | 3.76  | 3.95  | 4.01  | 4.20  | 4.11  |
| 국채 10년물 | 3.83  | 3.68  | 3.24  | 3.48  | 3.56  | 4.25  | 4.50  | 4.06  | 4.08  | 4.22  | 4.31  | 4.31  |
| 위안/달러   | 6,540 | 6,533 | 6,667 | 6,833 | 6,644 | 6,889 | 6,862 | 6,671 | 6,613 | 6,758 | 6,429 | 6,322 |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 다. 일본경제

- 2017년 4/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0.4%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일본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1.8%)은 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1.4%)과 소비자신뢰지수(44.7)는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전년동기 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2.5%)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0.3%)은 동반 하락함
  - 실업률(2.7%)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1.60배)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6%)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3%, 10년물 0.05%)는 소폭 변화하여 전분기와 유사함

###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0.4%를 기록함<sup>12)</sup>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p 상승한 0.5%를 기록함
    - 임금 및 고용여건 개선, 주가 상승 등 소비심리 회복으로 전기 대비 증가 전환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1%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한 -2.6%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4%p 상승한 -0.2%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4%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1%p 상승한 2.9%를 기록함
    -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출이 호조를 보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0%를 기록함

12) 손영환(2018. 2. 14), “일본 '17년 4분기 성장률 연율 0.5%로 둔화”, 국제금융센터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 구분     | 2015           |      | 2016         |              |              |              |      | 2017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 GDP | -0.3<br>(-1.1) | 1.4  | 0.7<br>(2.7) | 0.3<br>(1.3) | 0.2<br>(0.9) | 0.3<br>(1.1) | 0.9  | 0.5<br>(1.9) | 0.6<br>(2.4) | 0.6<br>(2.4) | 0.4<br>(1.6) | 1.7 |
| 민간소비   | -0.6           | 0.0  | 0.2          | -0.1         | 0.4          | 0.0          | 0.1  | 0.3          | 0.9          | -0.6         | 0.5          | 1.1 |
| 설비투자   | 0.3            | 3.4  | -0.4         | 0.4          | -0.2         | 1.5          | 0.6  | 0.2          | 1.2          | 1.0          | 1.0          | 3.0 |
| 주택투자   | -0.2           | -1.0 | 1.4          | 2.1          | 2.5          | 0.8          | 5.6  | 1.2          | 0.9          | -1.7         | -2.6         | 2.6 |
| 공공투자   | -0.9           | -1.7 | -0.1         | 2.4          | 0.2          | -1.9         | -0.1 | -0.2         | 4.8          | -2.6         | -0.2         | 1.2 |
| 수출     | -0.7           | 2.9  | 0.0          | -0.5         | 2.3          | 2.7          | 1.3  | 2.0          | 0.0          | 2.1          | 2.4          | 6.8 |
| 수입     | -0.7           | 0.8  | -1.7         | -0.9         | 0.2          | 0.6          | -1.9 | 1.7          | 1.9          | -1.2         | 2.9          | 3.6 |
| 정부지출   | 0.9            | 1.5  | 1.1          | -1.1         | 0.4          | -0.2         | 1.3  | 0.1          | 0.2          | 0.1          | 0.0          | 0.1 |

주: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8. 3)

##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1.8%로, 전분기보다 1.4%p 상승함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5%p 상승한 1.4%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44.7로 전분기보다 1 상승함
- 201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동반 하락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0.1%p 하락한 -2.5%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5%p 하락한 0.3%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광공업생산 증가율 <sup>1)</sup>   | -0.9 | 0.2  | 1.6  | 1.9  | -0.2 | 0.2  | 2.1  | 0.4  | 1.8  | 4.7  | -6.6  | n.a. |
| 소매판매 증가율 <sup>2)</sup>    | -1.3 | 0.0  | 0.5  | 1.5  | -0.6 | -0.2 | 0.7  | -0.1 | 1.4  | 1.9  | -1.8  | n.a. |
| 소비자신뢰지수 <sup>3)</sup>     | 41.3 | 41.2 | 42.1 | 42.2 | 41.7 | 43.4 | 43.4 | 43.7 | 44.7 | 43.8 | 44.7  | 44.3 |
|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sup>4)</sup>  | 5.5  | 4.9  | 7.1  | 7.9  | 6.4  | 3.2  | 1.1  | -2.4 | -2.5 | -0.3 | -13.2 | n.a. |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sup>5)</sup> | 4.4  | -5.2 | 3.9  | 0.4  | 1.7  | -1.2 | -3.4 | 2.8  | 0.3  | -1.1 | -20.1 | n.a. |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 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 대비,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 〈고용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전분기 대비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sup>13)</sup>은 상승함

○ 실업률은 2.7%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함

○ 유효구인배율은 1.60배로 전분기 대비 높아지며 상승세를 지속함

■ 2017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1%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실업률                       | 3.2  | 3.1  | 3.0  | 3.1  | 3.1  | 2.9  | 2.9  | 2.8  | 2.7  | 2.8  | 2.4  | 2.5  |
| 유효구인배율 <sup>1)</sup>      | 1.30 | 1.35 | 1.37 | 1.40 | 1.40 | 1.44 | 1.49 | 1.52 | 1.60 | 1.50 | 1.59 | 1.58 |
|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2)</sup>   | 0.0  | -0.4 | -0.5 | 0.3  | -0.1 | 0.3  | 0.4  | 0.6  | 0.6  | 0.5  | 1.4  | 1.5  |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sup>2)</sup> | 0.6  | 0.5  | 0.2  | 0.1  | 0.3  | -0.1 | -0.2 | 0.0  | 0.1  | -0.1 | 0.1  | 0.3  |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15=100,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13)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 〈국채금리〉

■ 2017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sup>14)</sup> 유지 결정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bp 하락한 -0.13%,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와 같은 0.05%임
- 일본은행(BOJ)은 2018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으나, 금년 중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힘<sup>15)</sup>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국채 3년물  | -0.13 | -0.24 | -0.24 | -0.19 | -0.20 | -0.18 | -0.15 | -0.11 | -0.13 | -0.14 | -0.10 | -0.11 |
| 국채 10년물 | 0.07  | -0.11 | -0.12 | 0.00  | -0.04 | 0.08  | 0.04  | 0.05  | 0.05  | 0.06  | 0.08  | 0.07  |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4)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15) 손영환(2018. 1. 23), “BOJ: 성장 및 물가 전망치 유지”, 국제금융센터

라. 유로지역<sup>16)</sup>경제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14.3)와 산업생산 증가율(1.5%)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전년동기 대비 실업률(5.6%)과 북유럽(6.1%)과 동유럽(5.3%), 남유럽(14.2%) 국가의 실업률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주요국(2.0%)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1.2%)국가는 하락, 동유럽(2.0%)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 남유럽(1.3%) 국가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국 평균 국채금리(독일 3년물 -0.62%, 독일 10년물 0.38%, 영국 3년물 0.52%, 영국 10년물 1.28%)는 전분기 대비 소폭 변화함

##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하락하고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며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0.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프랑스는 0.2%p 상승한 0.7%를 기록한 반면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하여 각각 0.6%, 0.3%, 0.4%를 기록함
  - 4/4분기 유로지역 고용 개선 및 가계와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함<sup>17)</sup>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2%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상승한 0.9%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1.9%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1.1%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0.3%를 기록함

16)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17) 자본시장연구원(2018. 3), 『자본시장리뷰 2018년 봄호』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sup>1)</sup>

(단위: %)

| 구분     | 2015         |     | 2016         |              |              |              |     | 2017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 GDP | 0.4<br>(1.7) | 2.1 | 0.5<br>(2.1) | 0.4<br>(1.4) | 0.4<br>(1.6) | 0.6<br>(2.6) | 1.8 | 0.6<br>(2.5) | 0.7<br>(3.0) | 0.7<br>(2.8) | 0.6<br>(2.4) | 2.3 |
| 민간소비   | 0.5          | 1.8 | 0.7          | 0.3          | 0.3          | 0.5          | 2.0 | 0.5          | 0.5          | 0.3          | 0.2          | 1.6 |
| 고정자본투자 | 1.4          | 3.3 | 0.5          | 2.4          | 0.7          | 0.8          | 4.6 | 0.2          | 1.7          | -0.2         | 0.9          | 3.5 |
| 수출     | 1.1          | 6.4 | 0.4          | 1.3          | 0.4          | 1.6          | 3.4 | 1.3          | 1.2          | 1.6          | 1.9          | 4.9 |
| 수입     | 1.8          | 6.7 | 0.4          | 2.0          | 0.6          | 1.8          | 4.8 | 0.2          | 1.8          | 0.6          | 1.1          | 4.4 |
| 정부지출   | 0.4          | 1.3 | 0.8          | 0.3          | 0.2          | 0.3          | 1.8 | 0.2          | 0.4          | 0.4          | 0.3          | 1.2 |

주: 1)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8. 3)

##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14.3으로 전분기 대비 2.8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4%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0.2로 상승세를 지속함

■ 2017년 4/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1.5%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sup>1)</sup>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유로 지역 ESI <sup>2)</sup>    | 103.4 | 103.7 | 103.7 | 106.4 | 104.3 | 107.5 | 109.5 | 111.5 | 114.3 | 110.7 | 114.9 | 114.1 |
| 소매판매 증가율 <sup>3)</sup> (%) | 0.5   | 0.3   | 0.6   | 1.0   | 1.7   | 0.2   | 0.8   | 0.5   | 0.4   | 2.3   | -0.1  | n.a.  |
| 소비자신뢰지수 <sup>4)</sup>      | -8.3  | -7.9  | -8.3  | -6.6  | -7.8  | -5.5  | -2.7  | -1.5  | -0.2  | -2.5  | 1.4   | 0.1   |
| 산업생산 증가율 <sup>5)</sup> (%) | 1.2   | -0.4  | 0.4   | 1.0   | 1.6   | 0.1   | 1.2   | 1.3   | 1.5   | 2.9   | -1.0  | n.a.  |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 40%, 서비스업 30%, 소비자 신뢰 20%, 건설업 5%, 소매거래 5%임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sup>18)</sup>〉

■ 2017년 4/4분기 유럽 주요국과 나머지 지역의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sup>19)</sup>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5.6%를 기록함
- 북유럽의 실업률(6.1%)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하였고 동유럽의 실업률(5.3%)은 0.4%p, 남유럽의 실업률(14.2%)은 0.2%p 하락함

■ 2017년 4/4분기 주요국과 동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북유럽은 하락, 남유럽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2.0%를,<sup>20)</sup> 동유럽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2.0%를 기록함
- 북유럽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1.2%이고, 남유럽은 1.3%를 기록하며 전분기와 동일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분기        | 실업률               |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5)</sup> |     |     |     |
|-----------|-------------------|-------------------|-------------------|-------------------|-------------------------|-----|-----|-----|
|           | 주요국 <sup>1)</sup> | 북유럽 <sup>2)</sup> | 동유럽 <sup>3)</sup> | 남유럽 <sup>4)</sup> | 주요국                     | 북유럽 | 동유럽 | 남유럽 |
| 2017년 2/4 | 5.9               | 6.4               | 5.8               | 14.8              | 1.8                     | 1.4 | 1.3 | 1.7 |
| 2017년 3/4 | 5.8               | 6.3               | 5.7               | 14.4              | 1.8                     | 1.5 | 1.6 | 1.3 |
| 2017년 4/4 | 5.6               | 6.1               | 5.3               | 14.2              | 2.0                     | 1.2 | 2.0 | 1.3 |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4)

18)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19) ECB(2018, 3), *ECB Staff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Euro Area*

20) ECB(2018, 4), *Annual Report 2017*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 구분   |        | 2015 |     | 2016 |      |      |      |     | 2017 |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독일   | 실질 GDP | 0.4  | 1.7 | 0.6  | 0.5  | 0.3  | 0.4  | 1.9 | 0.9  | 0.6 | 0.7  | 0.6  | 2.2 |
|      | 민간소비   | 0.6  | 1.7 | 0.6  | 0.2  | 0.4  | 0.6  | 2.1 | 0.8  | 0.9 | -0.2 | 0.0  | 1.9 |
|      | 고정자본투자 | 2.5  | 1.5 | 1.2  | -1.2 | 0.5  | 0.0  | 3.1 | 2.6  | 1.5 | 0.4  | 0.0  | 3.3 |
|      | 수출     | -0.5 | 5.2 | 1.0  | 1.3  | -0.2 | 1.3  | 2.6 | 1.7  | 1.0 | 1.8  | 2.7  | 4.7 |
|      | 수입     | 0.7  | 5.6 | 1.7  | -0.2 | 0.7  | 2.5  | 3.9 | 0.4  | 2.4 | 1.1  | 2.0  | 5.1 |
| 프랑스  | 실질 GDP | 0.2  | 1.1 | 0.6  | -0.1 | 0.2  | 0.5  | 1.2 | 0.7  | 0.6 | 0.5  | 0.7  | 1.8 |
|      | 민간소비   | 0.2  | 1.4 | 1.3  | 0.3  | -0.2 | 0.7  | 2.2 | 0.2  | 0.3 | 0.5  | 0.2  | 1.1 |
|      | 고정자본투자 | 1.2  | 1.0 | 1.1  | 0.1  | 0.3  | 0.5  | 2.8 | 1.7  | 0.9 | 0.9  | 1.1  | 3.5 |
|      | 수출     | 0.7  | 4.3 | 0.4  | -0.2 | 1.0  | 1.0  | 1.8 | -0.7 | 2.2 | 1.0  | 2.5  | 3.1 |
|      | 수입     | 2.6  | 5.7 | 0.5  | -1.0 | 2.8  | 0.8  | 4.2 | 1.2  | 0.0 | 2.2  | 0.3  | 4.0 |
| 이탈리아 | 실질 GDP | 0.2  | 1.0 | 0.3  | 0.1  | 0.2  | 0.4  | 0.9 | 0.5  | 0.4 | 0.4  | 0.3  | 1.5 |
|      | 민간소비   | 0.4  | 1.9 | 0.2  | 0.2  | 0.3  | 0.3  | 1.4 | 0.6  | 0.1 | 0.4  | 0.1  | 1.3 |
|      | 고정자본투자 | 0.4  | 2.1 | 1.0  | -0.2 | 2.0  | 2.5  | 3.2 | -2.1 | 1.5 | 3.2  | 1.7  | 3.7 |
|      | 수출     | 1.8  | 4.4 | -0.7 | 1.8  | 0.9  | 1.9  | 2.4 | 1.9  | 0.2 | 2.0  | 2.0  | 5.4 |
|      | 수입     | 2.3  | 6.8 | -0.7 | 2.0  | 1.0  | 2.3  | 3.5 | 0.2  | 2.0 | 1.9  | 1.0  | 5.3 |
| 스페인  | 실질 GDP | 0.9  | 3.4 | 0.7  | 0.8  | 0.7  | 0.7  | 3.3 | 0.8  | 0.9 | 0.7  | 0.7  | 3.1 |
|      | 민간소비   | 0.5  | 3.0 | 1.0  | 0.6  | 0.8  | 0.4  | 3.0 | 0.4  | 0.8 | 0.7  | 0.6  | 2.4 |
|      | 고정자본투자 | 0.8  | 6.5 | 0.6  | 1.6  | -0.3 | 0.8  | 3.3 | 2.8  | 0.6 | 1.4  | 0.7  | 5.0 |
|      | 수출     | 0.8  | 4.2 | 1.4  | 2.1  | -0.5 | 1.5  | 4.8 | 2.4  | 1.0 | 0.6  | 0.3  | 5.0 |
|      | 수입     | -0.2 | 5.9 | 0.8  | 1.9  | -1.7 | 0.6  | 2.7 | 3.7  | 0.5 | 1.0  | 0.0  | 4.7 |
| 영국   | 실질 GDP | 0.7  | 2.3 | 0.2  | 0.5  | 0.5  | 0.7  | 1.9 | 0.2  | 0.3 | 0.5  | 0.4  | 1.7 |
|      | 민간소비   | 0.4  | 2.6 | 0.7  | 1.0  | 0.8  | 0.3  | 2.9 | 0.4  | 0.3 | 0.4  | 0.3  | 1.7 |
|      | 고정자본투자 | 0.1  | 2.8 | 0.7  | 2.0  | 1.1  | 0.7  | 1.8 | 0.8  | 1.2 | 0.7  | 1.1  | 3.9 |
|      | 수출     | 1.9  | 5.0 | -1.5 | 2.8  | -1.8 | 5.2  | 2.3 | 0.0  | 1.7 | 0.2  | -0.2 | 5.0 |
|      | 수입     | 3.2  | 5.1 | 0.2  | 1.0  | 3.3  | -1.0 | 4.8 | 1.0  | 0.5 | 1.0  | 1.5  | 3.5 |

주: 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3)

## 〈국채금리〉

- 2017년 4/4분기 영국의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독일의 국채금리는 하락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5bp 하락한 -0.62%,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7bp 하락한 0.38%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8bp 상승한 0.52%,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0bp 상승한 1.28%임
  - 2017년 11월 영국중앙은행(BOE)은 계속된 파운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하자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sup>21)</sup>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독일국채 3년물  | -0.44 | -0.53 | -0.66 | -0.68 | -0.58 | -0.71 | -0.67 | -0.57 | -0.62 | -0.64 | -0.47 | -0.33 |
| 독일국채 10년물 | 0.32  | 0.12  | -0.07 | 0.19  | 0.14  | 0.36  | 0.31  | 0.45  | 0.38  | 0.37  | 0.55  | 0.72  |
| 영국국채 3년물  | 0.60  | 0.57  | 0.16  | 0.23  | 0.39  | 0.22  | 0.21  | 0.34  | 0.52  | 0.32  | 0.62  | 0.80  |
| 영국국채 10년물 | 1.56  | 1.37  | 0.72  | 1.25  | 1.22  | 1.28  | 1.06  | 1.18  | 1.28  | 1.20  | 1.33  | 1.56  |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1) 김위대(2017. 12. 19), “2018년 유럽 권역별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

## 2. 국내경제

- 2017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8%,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함
  - 민간소비(3.4%)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설비투자(8.6%)와 건설투자(3.8%)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0.6%)이 감소함
- 2017년 4/4분기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지속, 물가안정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함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등으로 8.6%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안정화정책과 토목건설 부진 심화 등으로 3.8% 증가에 그침
  -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0.9%)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광공업 생산(-3.8%)이 수출 부진, 자동차 생산 및 부품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0.7% 감소함
  - 총취업자 수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4%p 감소한 61.0%, 실업률은 0.2%p 감소한 3.2%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1.2 상승한 110.5를 기록함
  -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8.4%(1,435억 달러) 증가하였고 수입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로 11.6%(1,234억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1%, 실질소득은 1.6% 증가하여 9분기만에 증가 전환함
- 2017년 4/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7, 100.4를 기록함
- 2017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추석명절 장기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투자와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어 성장세가 둔화됨

## 가. 경제성장

■ 2017년 4/4분기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 지식생산물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하였고, 전분기 대비로는 0.2% 감소함

○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와 비내구재(식료품, 도시가스 등)를 중심으로 3.4% 증가함 (〈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8.6%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 중심으로 3.8% 증가함(〈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3.5% 증가함

○ 수출은 추석명절 장기연휴에 따른 통관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sup>22)</sup> 0.6% 감소하였고, 수입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함

■ 2017년 연간 국내총생산은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여 전년 대비 3.1% 증가함

○ 건설투자(7.6%)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14.6%)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여 민간소비(2.6%)와 수출(1.9%) 부진을 상쇄함

○ 지출항목별 연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각각 1.2%p, 순수출이 -1.7%p 등으로 나타남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 구분      | 2016         |              |              |              |      | 2017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실질 GDP  | 3.0<br>(0.6) | 3.5<br>(0.8) | 2.7<br>(0.4) | 2.6<br>(0.7) | 2.9  | 2.9<br>(1.0) | 2.8<br>(0.6) | 3.8<br>(1.4) | 2.8<br>(-0.2) | 3.1  |
| 민간소비    | 2.4          | 3.6          | 2.8          | 1.4          | 2.5  | 2.1          | 2.4          | 2.6          | 3.4           | 2.6  |
| 설비투자    | -3.6         | -1.6         | -2.5         | 3.3          | -1.0 | 16.1         | 17.9         | 16.3         | 8.6           | 14.6 |
| 건설투자    | 8.4          | 9.4          | 11.0         | 11.9         | 10.3 | 11.3         | 8.5          | 8.0          | 3.8           | 7.6  |
| 지식생산물투자 | 2.0          | 4.0          | 4.0          | 3.8          | 3.5  | 3.2          | 2.2          | 2.9          | 3.5           | 3.0  |
| 수출      | 1.7          | 3.0          | 4.2          | 1.3          | 2.6  | 3.7          | 0.3          | 4.4          | -0.6          | 1.9  |
| 수입      | 3.4          | 5.1          | 7.0          | 3.5          | 4.7  | 10.1         | 6.6          | 7.4          | 4.1           | 7.0  |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22)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 나. 경제동향

### 〈소비 및 투자〉

- 2017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개선 및 물가안정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하였고, 2018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 6.3% 증가함<sup>23)</sup>
  - 1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 판매가 확대되어 전월동기 대비 1.2% 증가하였고<sup>24)</sup> 2월에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한 야외 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함<sup>25)</sup>
  - 2017년 4/4분기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축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함
  - 1월에는 승용차 등 내구재(15.6%)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3.3%)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감소함
  - 2월에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0.8%)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였고, 내구재(0.7%)와 준내구재(1.6%) 판매도 전년동월 대비 증가함
- 2017년 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p 감소한 1.9%를 기록함
  - 화장품 등 비내구재(1.7%)의 성장이 둔화되고 의복 등 준내구재(-1.1%) 판매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침

23) 한국은행(2018.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표 25〉 소비 관련 지표<sup>1)</sup>

(단위: %)

| 구분   | 2016 |     | 2017 |      |      |                   |                  | 2018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sup>2)</sup> | 연간 <sup>2)</sup> | 1월 <sup>2)</sup> | 2월 <sup>2)</sup> |
| 민간소비 | 1.4  | 2.5 | 2.1  | 2.4  | 2.6  | 3.4               | 2.6              | -                | -                |
| 소매판매 | 2.2  | 3.9 | 1.6  | 1.0  | 3.2  | 2.1               | 1.9              | 1.2              | 6.3              |
| 내구재  | 0.3  | 4.6 | 3.4  | 3.8  | 12.0 | 2.3               | 5.4              | 15.6             | 0.7              |
| 승용차  | -3.4 | 2.8 | 2.8  | -5.6 | 16.1 | -5.9              | 0.9              | 20.3             | -0.3             |
| 준내구재 | 0.1  | 2.3 | -1.8 | -2.3 | -0.8 | 0.6               | -1.1             | -3.3             | 1.6              |
| 비내구재 | 4.3  | 4.2 | 2.2  | 1.1  | 0.9  | 2.8               | 1.7              | -3.1             | 10.8             |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최근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 관련 지수 기준연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개편함(2018. 2)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투자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함

○ 2017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7.4%)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10.8%) 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에 그침

- 1월과 2월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선박 등의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21.6%, 9.7% 증가함<sup>26)</sup>

○ 2017년 4/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sup>27)</sup>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sup>28)</sup>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에 그침

- 1월에는 공공 및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여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20.9% 증가함

- 2월에는 공공 및 운수업 등 민간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10.9% 감소함<sup>29)</sup>

■ 2017년 연간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의 운송장비(-4.4%)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등의 기계류(22.4%)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6% 증가함

26)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3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27)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8) 제조업 평균가동률(%), 통계청: ('17. 1/4) 73.5, ('17. 2/4) 72.0, ('17. 3/4) 73.0, ('17. 4/4) 71.8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영상·음향·통신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2% 증가함

〈표 26〉 투자 관련 지표<sup>1)</sup>

(단위: %)

| 구분                   | 2016 |       | 2017 |       |       |                   |                  | 2018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sup>2)</sup> | 연간 <sup>2)</sup> | 1월 <sup>2)</sup> | 2월 <sup>2)</sup> |
| 설비투자                 | 3.3  | -1.0  | 16.1 | 17.9  | 16.4  | 8.6               | 14.6             | -                | -                |
| 설비투자지수               | 5.9  | -1.3  | 18.2 | 17.8  | 20.6  | 2.0               | 14.1             | 21.6             | 9.7              |
| 기계류                  | 12.0 | -2.2  | 24.8 | 34.5  | 25.5  | 7.4               | 22.4             | 26.8             | 12.1             |
| 운송장비                 | -6.1 | 0.9   | 2.6  | -13.5 | 8.4   | -10.8             | -4.4             | 6.4              | 3.4              |
| 국내기계수주 <sup>3)</sup> | 16.7 | 4.7   | 21.1 | 23.7  | 31.3  | 4.2               | 19.2             | 20.9             | -10.9            |
| 건설투자                 | 11.9 | 10.3  | 11.3 | 8.5   | 8.0   | 3.8               | 7.6              | -                | -                |
| 건설기성(불변)             | 17.7 | 15.4  | 17.7 | 13.6  | 12.7  | -0.5              | 10.1             | 15.3             | 0.9              |
| 건축                   | 28.7 | 25.7  | 26.6 | 22.9  | 21.7  | 5.6               | 18.2             | 19.5             | 4.3              |
| 토목                   | -1.9 | -2.6  | -1.1 | -6.9  | -8.9  | -14.8             | -8.4             | 3.4              | -8.6             |
| 국내건설수주(경상)           | 26.4 | 8.1   | 1.2  | 17.9  | -10.2 | -15.0             | -3.1             | 39.3             | -38.9            |
| 건축                   | 40.7 | 14.4  | -7.7 | 8.4   | -8.3  | -15.5             | -6.5             | -12.1            | -36.6            |
| 토목                   | -7.8 | -10.5 | 29.7 | 63.3  | -17.3 | -13.0             | 9.7              | 266.1            | -42.6            |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4/4분기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안정화정책과 토목건설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에 그침<sup>30)</sup>

- 건설기성(불변)<sup>31)</sup>은 3/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감소세로 전환, 4/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함

- 1월에는 신규주택 완공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5.3%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선행지표의 부진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 보임<sup>32)</sup>
- 2월에는 신규주택 수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축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에 그침<sup>33)</sup>

30)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31)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32)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3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함

- 1월에는 주택, 학원·병원 등의 건축부문(-12.1%)이 감소하였으나, 발전·통신, 항만·공항 등의 토목부문(266.1%)이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함<sup>34)</sup>

- 2월에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의 건축부문(-36.6%)과 발전·통신 등의 토목부문(-42.6%)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38.9% 감소함<sup>35)</sup>

■ 2017년 연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7.6% 증가에 그침

○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으나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3.1% 감소함

### 〈산업생산〉

■ 2017년 4/4분기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생산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 0.8% 감소함

○ 2017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수출 부진, 부분파업·휴무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및 부품수요 감소와 조선업 업황 부진에 따른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함<sup>36)</sup>

- 1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기저효과와 신차효과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증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및 PC용 메모리반도체 수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동기 대비 4.3% 증가함<sup>37)</sup>

- 2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생산 감소 등으로 전월동기 대비 6.4% 감소함

○ 2017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함

- 1월에는 전문·과학·기술업, 수출입 관련 운수·창고업, 증시 호조에 따른 금융·보험업 등의 생산이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동기 대비 3.6% 증가함<sup>38)</sup>

34)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35)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3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3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31), “12월 산업활동동향”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3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2), “18.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2월에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한 야외 활동 확대 및 주요 유통업체 매출 증가로 인해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동기 대비 2.2% 증가함<sup>39)</sup>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sup>1)</sup>

(단위: %)

| 구분                   | 2016 |      | 2017 |      |      |                   |                  | 2018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sup>2)</sup> | 연간 <sup>2)</sup> | 1월 <sup>2)</sup> | 2월 <sup>2)</sup> |
| 전산업 생산 <sup>3)</sup> | 3.3  | 3.1  | 3.9  | 2.5  | 3.9  | -0.7              | 2.3              | 4.4              | -0.8             |
| 광공업                  | 3.7  | 2.3  | 4.7  | 2.2  | 4.6  | -3.8              | 1.9              | 4.3              | -6.4             |
| 제조업                  | 3.8  | 2.4  | 4.8  | 1.9  | 4.6  | -4.8              | 1.6              | 3.7              | -7.2             |
| 자동차                  | 2.2  | -2.3 | -0.5 | -1.1 | 11.7 | -17.9             | -2.9             | 1.5              | -19.7            |
| ICT                  | 5.3  | 7.0  | 11.4 | 0.1  | 1.6  | 2.3               | 3.6              | 0.6              | 3.0              |
| 서비스업                 | 1.8  | 2.6  | 2.2  | 1.7  | 2.5  | 0.9               | 1.9              | 3.6              | 2.2              |
| 도매 및 소매업             | 1.7  | 2.6  | 0.9  | 0.1  | 2.2  | -0.2              | 0.7              | 0.6              | 2.6              |
| 운수업                  | -0.1 | 2.2  | 0.5  | 0.9  | 2.8  | 1.9               | 1.6              | 2.8              | -0.2             |
| 숙박 및 음식점업            | -1.4 | 2.3  | -1.0 | -1.6 | -2.4 | -2.5              | -1.9             | -1.1             | -5.0             |
| 금융 및 보험업             | 4.1  | 4.1  | 4.8  | 4.9  | 4.5  | 6.3               | 5.1              | 12.5             | 7.2              |
| 부동산 및 임대업            | 1.8  | 0.6  | 3.3  | 2.5  | 3.7  | -4.6              | 1.2              | 3.9              | 0.9              |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4) 최근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광공업·서비스업 지수 기준 연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개편함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고용 및 물가〉

- 2017년 4/4분기 총취업자 수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을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1.0%, 실업률은 3.2%를 기록함<sup>40)</sup>

- 1월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건설업 고용 개선 등으로 4개월 만에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경제활동참여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전년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침<sup>41)</sup>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30), “'18.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40) 기획재정부(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14), “'18. 1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14), “'18. 2월 고용동향”

- 2017년 4/4분기 고용률은 인구 감소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4%p 감소한 61.0%를 기록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59.5%, 59.2%를 나타냄
- 2017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으며, 1월에는 졸업 시즌, 인구변화 등의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이 상승<sup>42)</sup>하여 3.7%, 2월에는 4.6%을 기록함

■ 2017년 연간 취업자 수는 주택건설 호조, 수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관광객 감소 영향이 누적되고 자영업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3.7%를 기록함<sup>43)</sup>

- 고용률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0.2%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대 후반 인구 증가에 따른 구직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채용이 위축되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일용직·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일자리의 질이 다소 미흡함

■ 2017년 4/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수출 증가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침<sup>44)</sup>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0.5%, 4.3% 증가함
- 광공업 취업자 수<sup>45)</sup>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설비투자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2.4%, 0.3% 증가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침
  - 1월과 2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소매업 중심의 고용원

4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14), "18. 1월 고용동향"

4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4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45) 제조업 포함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고용둔화 추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 대비 각각 0.7%, 0.2% 증가함<sup>46)</sup>

■ 2017년 연간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상반기에는 제조업의 고용이 부진했고 하반기에는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됨

○ 건설업의 경우 '14~'15년 아파트 분양 확대에 따른 준공물량 확대 등<sup>47)</sup>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6.4% 증가함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 2016 |      | 2017 |      |      |      |      | 2018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총취업자 <sup>1)</sup>                 | 1.0  | 0.9  | 1.4  | 1.4  | 1.0  | 1.0  | 1.2  | 1.3  | 0.4  |
| 청년취업자 <sup>1)</sup>                | 0.4  | 1.1  | 0.4  | 0.8  | -0.2 | -1.1 | 0.0  | 0.8  | 1.1  |
| 고용률 <sup>2)</sup>                  | 60.9 | 60.6 | 59.6 | 61.3 | 61.4 | 61.0 | 60.8 | 59.5 | 59.2 |
| 실업률 <sup>3)</sup>                  | 3.2  | 3.7  | 4.3  | 3.8  | 3.4  | 3.2  | 3.7  | 3.7  | 4.6  |
| 청년 <sup>4)</sup> 실업률 <sup>3)</sup> | 8.3  | 9.8  | 10.7 | 10.3 | 9.3  | 9.0  | 9.8  | 8.7  | 9.8  |
| 〈산업별 취업자〉                          |      |      |      |      |      |      |      |      |      |
| 농림어업                               | -1.6 | -4.8 | -2.5 | 0.1  | 1.5  | 2.2  | 0.5  | 10.5 | 4.3  |
| 광공업                                | -2.5 | -0.3 | -2.5 | -0.4 | 0.8  | 0.9  | -0.3 | 2.4  | 0.3  |
| 제조업                                | -2.6 | -0.4 | -2.6 | -0.4 | 0.7  | 0.9  | -0.4 | 2.4  | 0.3  |
| SOC <sup>5)</sup> 및 기타서비스업         | 1.9  | 1.5  | 2.5  | 1.9  | 1.1  | 0.9  | 1.6  | 0.7  | 0.2  |
| 건설업                                | 4.3  | 0.8  | 7.6  | 8.8  | 4.4  | 4.7  | 6.4  | 5.2  | 3.4  |
| 도·소매, 음식, 숙박                       | 1.3  | 0.6  | 2.1  | 0.8  | -0.2 | -0.2 | 0.6  | -1.0 | -1.9 |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0.3  | 0.3  | -0.6 | -1.3 | -1.8 | -0.9 | -1.1 | 0.9  | 2.8  |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2.3  | 2.7  | 2.7  | 2.2  | 2.1  | 1.5  | 2.1  | 0.8  | 0.1  |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6) 고용통계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등록기반 인구를 적용하여 시계열 보정함(2018. 2. 14)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4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15), "17.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13), "17. 11월 고용동향"

4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1. 10), "17. 12월 고용동향"

■ 2017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sup>48)</sup>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에 그침<sup>49)</sup>

○ 2017년 4/4분기 상품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과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함

- 1월에는 보험서비스료 동결, 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와 축산물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상승하였고, 2월에는 한파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 상승함<sup>50)</sup>

○ 2017년 4/4분기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물가가 안정되고 집세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1.4%, 1.7% 상승함

■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의 압력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함<sup>51)</sup>

○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함

- 농축수산물은 조류독감(AI)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 여름철 폭우·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5% 상승함

-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7.7%)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함

- 전기·수도·가스의 경우 전기요금(-11.6%), 도시가스요금(-8.2%)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하락함

○ 서비스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 상승함

- 집세의 경우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어 전년 대비 1.6% 상승에 그침

- 개인서비스의 경우 보험서비스료 인상(전년 대비 19.5%)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함

48)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월부터 8.2% 인하함

49) 한국은행(2018.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5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2. 1), “2018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6), “2018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5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29),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 2017년 4/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1.2 상승한 110.5를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 1월에는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 등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달보다 0.7 하락한 109.9를 기록함<sup>52)</sup>
  - 2월에는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통화긴축 속도가 빨리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전달보다 1.7 하락한 108.2를 기록함<sup>53)</sup>
  - 2017년 연간 소비자심리지수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sup>54)</sup>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6 상승한 105.1을 기록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sup>1)</sup>

(단위: %)

| 구분                      | 2016 |      | 2017 |       |       |       |       | 2018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소비자심리지수 <sup>2)</sup>   | 96.9 | 99.1 | 94.3 | 106.4 | 109.3 | 110.5 | 105.1 | 109.9 | 108.2 |
|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3)</sup> | 1.5  | 1.0  | 2.1  | 1.9   | 2.3   | 1.5   | 1.9   | 1.0   | 1.4   |
|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      |      |      |       |       |       |       |       |       |
| 상품                      | 0.7  | -0.6 | 2.0  | 1.8   | 2.9   | 1.0   | 1.9   | 0.5   | 1.1   |
| 농축수산물                   | 7.5  | 3.8  | 6.1  | 6.1   | 8.4   | 1.4   | 5.5   | -0.6  | 3.5   |
| 공업제품                    | 0.4  | -0.5 | 2.1  | 1.3   | 0.9   | 1.5   | 1.4   | 1.0   | 0.8   |
| 전기·수도·가스                | -8.7 | -9.2 | -6.9 | -2.4  | 8.0   | -3.3  | -1.4  | -1.5  | -1.5  |
| 서비스                     | 2.1  | 2.3  | 2.1  | 2.0   | 1.9   | 1.9   | 2.0   | 1.4   | 1.7   |
| 집세                      | 1.7  | 1.9  | 1.7  | 1.8   | 1.6   | 1.4   | 1.6   | 1.2   | 1.1   |
| 공공서비스                   | 0.9  | 1.5  | 1.0  | 1.0   | 1.0   | 0.8   | 1.0   | 0.5   | 0.5   |
| 개인서비스                   | 2.7  | 2.7  | 2.7  | 2.5   | 2.3   | 2.5   | 2.5   | 2.0   | 2.4   |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대외거래〉

- 2017년 4/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4%(1,435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증가세가 다소 축소된 11.6%(1,234억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는 20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sup>55)</sup>

52) 국회예산처(2018. 2), 『NABO 경제동향&amp;이슈』

53) 국회예산처(2018. 3), 『NABO 경제동향&amp;이슈』

54)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축소됨
  - 수출의 경우 경공업제품(-6.8%)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식료 및 직접소비재(1.4%), 중화학 공업품(8.4%), 원료 및 연료(26.3%)의 증가세가 둔화됨
    - 1월에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 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세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22.3% 증가함<sup>56)</sup>
    - 2월에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2.5일), 중국 춘절 연휴(2.15~21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및 IT·반도체 경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함<sup>57)</sup>
  - 수입의 경우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의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4.6%, 9.6%, 7.1%로 증가세가 둔화됨
    - 1월과 2월에는 생산설비 투자 및 국내 생산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컴퓨터 기억장치의 수입 증가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1.3%, 14.9% 증가함
- 2017년 연간 수출은 15.8%(5,737억 달러) 증가하였고, 수입은 17.8%(4,784억 달러)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9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연간 수출의 경우 '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증가율은 '11년(19.0%) 이후 6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sup>58)</sup>
    - 국제유가 회복·수급 개선으로 수출단가가 12.8% 상승하였고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물량도 2.7% 증가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 연간 수입의 경우 신규 발전설비 가동, 국제유가 상승 및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등의 투자가 확대되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22.0%, 16.2% 증가 전환됨

55) 한국은행(2018.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5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2. 1), "2018년 1월 수출입 동향"

5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3. 1), "2018년 2월 수출입 동향"

5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1. 1), "2017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및 2018년 수출입 전망"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 구분   |            | 2016    |         | 2017    |         |         |         |         | 2018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수출   | 식료 및 직접소비재 | 10.6    | 8.0     | 9.5     | 4.8     | 8.8     | 1.4     | 5.9     | 23.1    | -6.7    |
|      | 원료 및 연료    | 5.0     | -16.4   | 58.5    | 15.2    | 28.6    | 26.3    | 30.7    | 29.4    | 11.1    |
|      | 경공업 제품     | 1.2     | 0.2     | 1.9     | -3.9    | 15.0    | -6.8    | 1.5     | 15.3    | -4.9    |
|      | 중화학 공업품    | 1.5     | -5.7    | 12.8    | 18.8    | 24.6    | 8.4     | 16.0    | 22.1    | 4.0     |
|      | 전체         | 1.8     | -5.9    | 14.7    | 16.7    | 24.0    | 8.4     | 15.8    | 22.3    | 3.9     |
|      | 금액         | 1,323.6 | 4,954.3 | 1,320.6 | 1,470.5 | 1,510.5 | 1,435.4 | 5,737.0 | 4,923.4 | 4,485.5 |
| 수입   | 소비재        | 2.5     | 1.0     | 8.0     | 5.3     | 16.5    | 7.1     | 9.2     | 23.9    | 18.0    |
|      | 원자재        | 3.8     | -12.8   | 36.2    | 22.9    | 16.6    | 14.6    | 22.0    | 19.9    | 16.3    |
|      | 자본재        | 5.1     | -2.0    | 16.2    | 19.5    | 20.4    | 9.6     | 16.2    | 22.3    | 11.5    |
|      | 전체         | 4.1     | -6.9    | 24.1    | 18.6    | 17.9    | 11.6    | 17.8    | 21.3    | 14.9    |
|      | 금액         | 1,105.9 | 4,061.9 | 1,164.3 | 1,178.0 | 1,208.5 | 1,234.0 | 4,784.8 | 5,321.7 | 4,900.8 |
| 무역수지 |            | 217.7   | 892.3   | 156.9   | 291.8   | 302.6   | 201.8   | 953.0   | 35.5    | 32.4    |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동향」

■ 2017년 4/4분기 지역별 수출은 對 중국, 對 아세안, 對 일본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 지역에서 증가함

○ 수출의 경우, 對 미국은 자동차 판매 부진, 對 중동은 건설수주 하락으로 인한 일반기계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 석유화학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對 아세안과 對 중국은 증가세를 지속함<sup>59)</sup>

- 1월에는 對 아세안(37.3%)이 글로벌 IT경기 호황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중간재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對 중남미(34.4%)는 선박 ·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고 對 중국(24.5%)은 정부의 IT 지원정책<sup>60)</sup>으로 반도체 · 컴퓨터 수출이 증가함<sup>61)</sup>
- 2월에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對 미국(-11.1%), 對 중동(-9.6%), 對 중남미(-3.9%)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현지 제조업 경기 호조로 인한 중간재 수출 증가, 국제유가 상승 및 인프라 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對 중국(3.7%), 對 아세안(4.8%), 對 일본(21.2%)의 수출은 증가함<sup>62)</sup>

5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2), 『2017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8년 1분기 전망』

60)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2. 1), 『18년 1월 수출입동향』)

6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2. 1), 『18년 1월 수출입동향』

- 수입의 경우 동남아(15.2%), 중동(14.1%), EU(10.6%) 등 전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함
  - 1월에는 호주(-10.1%)를 제외한 EU(35.8%), 미국(24.2%), 중동(23.6%) 등 주요 지역에서 수입이 증가함
  - 2월에는 동남아(8.3%), 일본(0.3%) 등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대다수의 지역에서 증가세를 이어감

■ 2017년 연간 기준으로 전 세계 120개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투자 확대에 의한 세계교역량 증가 등으로 각 지역으로의 수출·수입이 증가함<sup>63)</sup>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       | 비중 <sup>1)</sup> | 2016  | 2017 |      |      |       |      | 2018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 수출 | 중국    | 24.8             | -9.3  | 17.5 | 7.4  | 15.5 | 16.3  | 14.2 | 24.5  | 3.7   |
|    | ASEAN | 16.6             | -0.4  | 31.5 | 27.1 | 33.4 | 20.2  | 27.8 | 37.3  | 4.8   |
|    | 미국    | 12.0             | -4.8  | -2.1 | 0.0  | 19.5 | -2.7  | 3.2  | 4.4   | -11.1 |
|    | EU    | 9.4              | -3.1  | 8.0  | 35.9 | 24.0 | -2.0  | 15.9 | 10.5  | 17.8  |
|    | 중동    | 4.2              | -13.8 | 2.0  | -4.8 | 0.7  | -22.2 | -7.0 | 4.4   | -9.6  |
|    | 중남미   | 4.9              | -17.1 | 11.6 | 6.6  | 23.8 | -0.1  | 10.5 | 34.4  | -3.9  |
|    | 일본    | 4.7              | -4.8  | 18.6 | 11.3 | 8.6  | 3.3   | 10.1 | 21.6  | 21.2  |
|    | 전체    | 100.0            | -5.9  | 14.7 | 16.7 | 24.0 | 8.4   | 15.8 | 22.3  | 3.9   |
| 수입 | 중국    | 20.5             | -3.6  | 15.6 | 14.0 | 12.6 | 8.5   | 12.5 | 15.0  | 15.0  |
|    | 동남아   | 15.4             | -1.3  | 16.6 | 21.1 | 20.8 | 15.2  | 18.3 | 21.0  | 8.3   |
|    | 중동    | 14.7             | -21.0 | 65.7 | 26.6 | 21.8 | 14.1  | 29.6 | 23.6  | 25.7  |
|    | EU    | 12.0             | -9.3  | 8.8  | 4.6  | 17.8 | 10.6  | 10.4 | 35.8  | 19.9  |
|    | 일본    | 11.5             | 3.5   | 25.1 | 20.9 | 12.5 | 8.1   | 16.1 | 19.2  | 0.3   |
|    | 미국    | 10.6             | -1.8  | 19.2 | 26.0 | 20.9 | 4.5   | 17.4 | 24.2  | 17.6  |
|    | 호주    | 4.0              | -7.7  | 33.0 | 44.6 | 32.9 | 1.6   | 26.3 | -10.1 | 29.2  |
|    | 전체    | 100.0            | -6.9  | 24.1 | 18.6 | 17.9 | 11.6  | 17.8 | 21.3  | 14.9  |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동향」

6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8. 3. 1), 『18년 2월 수출입동향』

63) 국회예산처(2018. 3), 『2018 경제전망』

### 〈가계소득〉

- 2017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444만 5천 원을 기록하였으며,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하여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함
  -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경기회복 지연, 구조조정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친 293만 2천 원을 기록함<sup>64)</sup>
  - 사업소득은 주택 임대소득자 증가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94만 3천 원을 기록함
  -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1% 증가한 46만 8천 원을 기록함

6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5), “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sup>1)</sup>

(단위: %, %p, 만 원)

| 구분                   |                      | 2016  |       | 2017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금액                   | 431.2 | 439.9 | 459.3 | 434.7 | 453.7 | 444.5 |
|                      | 증가율                  | 0.2   | 0.6   | 0.8   | 0.9   | 2.1   | 3.1   |
|                      | 실질 증가율 <sup>2)</sup> | -1.2  | -0.4  | -1.2  | -1.0  | -0.2  | 1.6   |
| 근로소득                 | 금액                   | 290.6 | 294.8 | 302.2 | 287.8 | 306.7 | 293.2 |
|                      | 증가율                  | 0.4   | 1.0   | 0.0   | 0.5   | 1.6   | 0.9   |
| 사업소득                 | 금액                   | 86.9  | 85.9  | 85.6  | 89.1  | 91.6  | 94.3  |
|                      | 증가율                  | 2.2   | 1.5   | 0.9   | 4.1   | 6.2   | 8.5   |
| 재산소득                 | 금액                   | 1.7   | 1.6   | 2.2   | 1.7   | 1.9   | 1.8   |
|                      | 증가율                  | -4.4  | -18.4 | 15.2  | 12.9  | 34.4  | 9.5   |
| 이전소득                 | 금액                   | 42.5  | 44.7  | 49.5  | 44.0  | 45.0  | 46.8  |
|                      | 증가율                  | 2.9   | 2.1   | 5.3   | -1.6  | 1.0   | 10.1  |
| 처분가능 소득              | 금액                   | 354.1 | 358.8 | -     | -     | -     | -     |
|                      | 증가율                  | 0.4   | 0.7   | -     | -     | -     | -     |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 금액                   | 246.8 | 255.0 | -     | -     | -     | -     |
|                      | 증가율                  | -3.2  | -0.5  | -     | -     | -     | -     |
|                      | 실질 증가율 <sup>2)</sup> | -4.6  | -1.5  | -     | -     | -     | -     |
| 흑자액                  | 금액                   | 107.3 | 103.8 | -     | -     | -     | -     |
|                      | 증가율                  | 9.7   | 3.8   | -     | -     | -     | -     |
| 평균소비성향 <sup>3)</sup> |                      | 69.7  | 71.1  | -     | -     | -     | -     |
| 흑자율 <sup>4)</sup>    |                      | 30.3  | 28.9  | -     | -     | -     | -     |

주: 1) 전년동(분)기 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5)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되어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단, 가계소득통계는 분기 발표함. 이에 따라 가계소득계간보합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 다. 경기동향

■ 2017년 4/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sup>65)</su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sup>66)</sup>는 각각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7, 100.4를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수주액과 구인구직비율의 하락폭 축소, 소비자기대지수와 코스피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고순환지표와 기계류내수출하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7을 기록함

- 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0.8을 기록함

-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월 대비 0.2 하락한 100.6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이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100.4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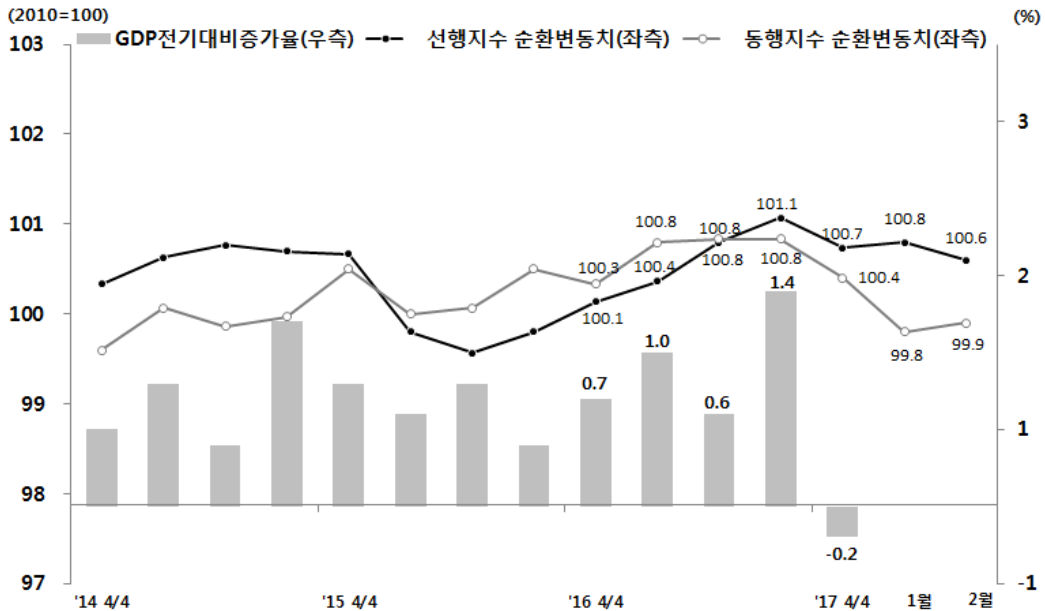
-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99.8을 기록함

-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와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하락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1 상승한 99.9를 기록함

65)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66)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8년 4/4분기,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4/4분기 제조업 재고율<sup>67)</sup>은 제조업 출하지수 하락(전분기 대비 0.1), 재고지수 상승(1.6)으로 전분기 대비 2.8%p 상승한 105.9%를 기록함<sup>68)</sup>

○ 1월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 대비 0.2%p 상승한 109.4%임

- 1월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월 대비 0.9% 증가함<sup>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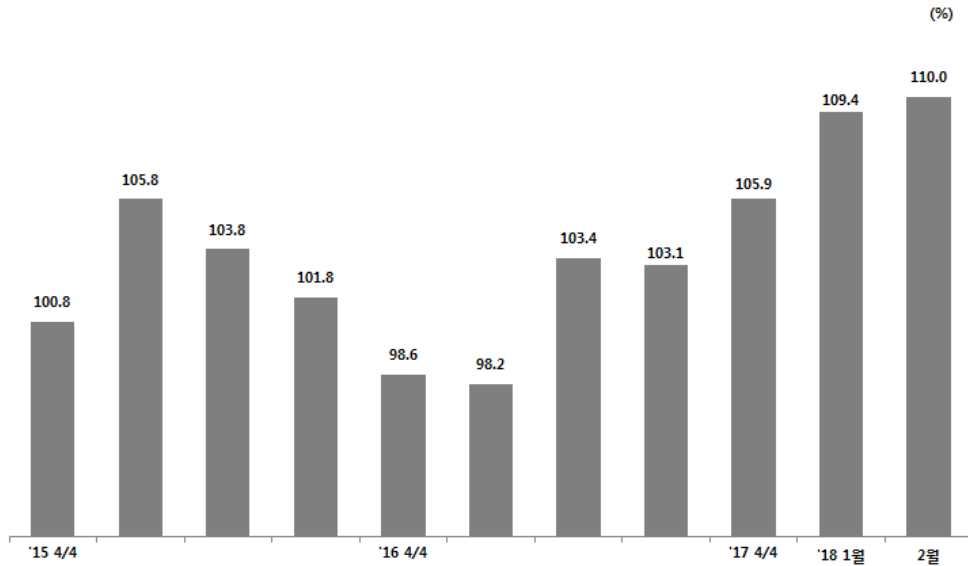
○ 2월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10.0%를 나타냄

- 2월 제조업 출하는 기타운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통신·방송 장비 등이 늘어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차금속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1% 증가함<sup>70)</sup>

67)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 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지수는 상승함

68) 통계청 보도자료(2018. 1. 31), “201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69)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2),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sup>1),2)</sup>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2) 최근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 관련 지수 기준연도를 '10년에서 '15년으로 개편함(2018. 2)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70) 통계청 보도자료(2018. 3. 3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 3. 국내금융

- 2018년 1/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2.24%, 2.49%, 2.70%로 2017년 4/4분기(2.09%, 2.30%, 2.49%)보다 상승함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50%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때문임
- 2018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72.3원으로 전분기(1,105.7원) 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472.91로 전분기(2,497.37) 대비 하락함
  - 달러화 약세,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임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 글로벌 증시 하락 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21,023.69로 전분기(21,561.79) 대비 하락하였고,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은 12.31로 전분기(12.17) 대비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86으로 전분기(0.89) 대비 하락함

#### 〈금리〉

- 2018년 1/4분기 정책금리는 1.50%로 동결됨(〈표 33〉 참고)
  - 2018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점검 필요성 및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이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 및 소비 증가세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1/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5bp 상승한 1.65%임(〈표 33〉 참고)
  - 1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66%, 2월과 3월은 1.65%로 매월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1/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각각 2.24%, 2.49%, 2.70%임(〈표 33〉 참고)

○ 1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국내 경기 개선,<sup>71)</sup> 주요국 통화정책<sup>72)</sup>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2.10%, 2.30%, 2.47%)보다 상승한 2.19%, 2.44%, 2.63%를 기록함

○ 2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2.28%, 2.54%, 2.77%를 나타냄

○ 3월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3년물 2.27%, 5년물 2.50%, 10년물 2.71%로 소폭 하락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 구분            | 2017<br>1/4 | 2017<br>2/4 | 2017<br>3/4 | 2017<br>4/4 | 2018<br>1/4 | 전분기<br>대비 | 전년동기<br>대비 |
|---------------|-------------|-------------|-------------|-------------|-------------|-----------|------------|
| 정책금리          | 1.25        | 1.25        | 1.25        | 1.50        | 1.50        | -         | 0.25       |
| CD(91일)       | 1.49        | 1.40        | 1.39        | 1.50        | 1.65        | 0.15      | 0.16       |
| 국고채(3년)       | 1.67        | 1.68        | 1.77        | 2.10        | 2.24        | 0.15      | 0.57       |
| 국고채(5년)       | 1.86        | 1.88        | 1.97        | 2.31        | 2.49        | 0.19      | 0.63       |
| 국고채(10년)      | 2.17        | 2.20        | 2.28        | 2.49        | 2.70        | 0.20      | 0.53       |
| 회사채(3년, AA-)  | 2.15        | 2.21        | 2.31        | 2.65        | 2.79        | 0.14      | 0.64       |
|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 0.48        | 0.53        | 0.54        | 0.55        | 0.54        | -0.01     | 0.06       |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sup>73)</sup>과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상승세였지만, 3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임(〈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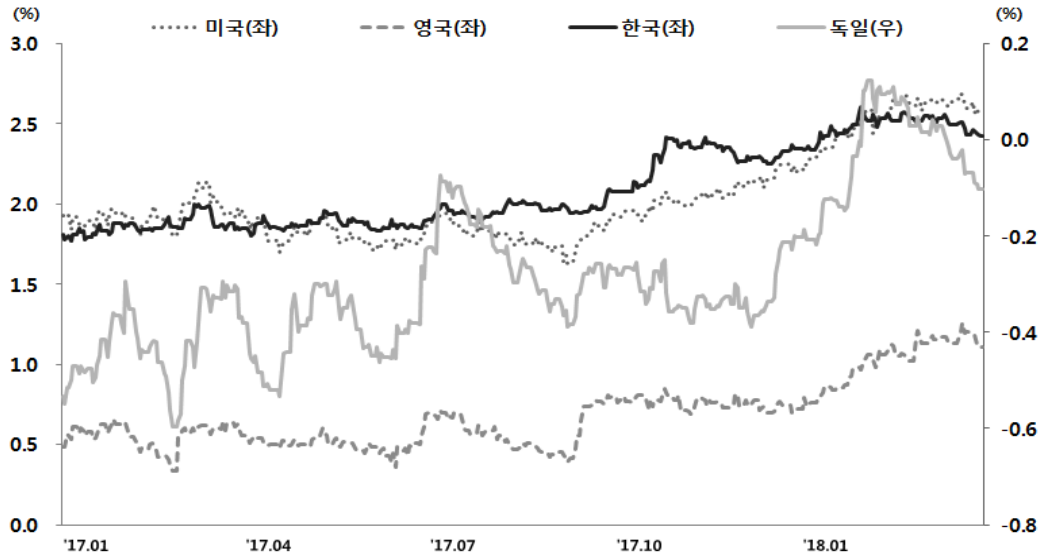
○ 특히 독일 국채금리는 사회민주당 연정 찬반 투표 및 이탈리아 총선 등 유로존 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3월 이후로 하락세를 보임

71)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17. 2/4) 2.7% → (3/4) 3.8% → (4/4) 3.0%

72) BOJ의 장기국채 매입 축소 계획 발표 및 ECB 위원의 매파적 발언의 영향

73) IMF 2018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 2.7%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8년 1/4분기 평균 2.79%로 전분기 대비 14bp 상승함(〈표 33〉 참고)

- 1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72%, 2월과 3월은 각각 2.82%, 2.83%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 대비 1bp 축소된 평균 54bp임

### 〈환율〉

■ 2018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 대비 33.4원 하락한 평균 1,072.3원임(〈표 34〉 참고)

- 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ECB·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약달러 선호 발언 등으로 최저치<sup>74)</sup>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19.1원 하락한 1,066.7원임
- 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미국 임금상승률 상승,<sup>75)</sup> 신임 의장 취임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기대 등으로 1월보다 12.9원 상승한 1,079.6원을 기록함

74) 2018년 1월 25일 종가는 1,058.63원으로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75) 1월 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9%를 보이며, 200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상승하였으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확대되며 1,071.9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 구분    | 2017    |         |         |         | 2018    |         |         |         |
|-------|---------|---------|---------|---------|---------|---------|---------|---------|
|       | 1/4     | 2/4     | 3/4     | 4/4     | 1/4     | 1월      | 2월      | 3월      |
| 원/달러  | 1,154.3 | 1,129.4 | 1,132.2 | 1,105.7 | 1,072.3 | 1,066.7 | 1,079.6 | 1,071.9 |
| 엔/달러  | 113.7   | 111.0   | 111.0   | 112.9   | 108.5   | 111.1   | 108.2   | 106.0   |
| 달러/유로 | 1.065   | 1.101   | 1.175   | 1.177   | 1.228   | 1.218   | 1.234   | 1.234   |
| 위안/달러 | 6.889   | 6.862   | 6.671   | 6.613   | 6.359   | 6.429   | 6.322   | 6.3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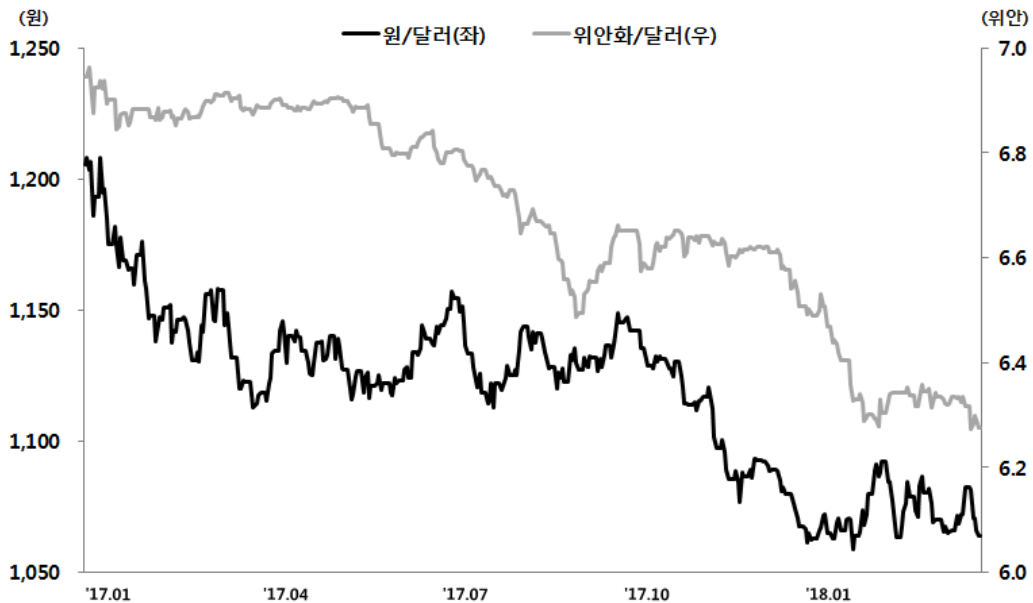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2018년 1/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0.254위안 하락한 평균 6.359위안을 기록함
- 중국 위안화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에 대한 경계심 및 통상압박 부담과 더불어 기준환율 산정방식(경기대응조정 요인 배제) 변경, 위안화의 국제화<sup>76)</sup> 등으로 2015년 10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

76)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뱅크는 위안화를 준비통화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2018년 3월 26일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 산하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INE)는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함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8년 1/4분기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강세,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표 34〉 참고)

- 1월 엔/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111.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의 경제지표 개선,<sup>77)</sup> 그리스의 금년 구제금융 종료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여 1.218달러를 기록함
- 2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증가, BOJ의 초장기 국채매입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108.2엔을,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달러화 약세, 독일의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등으로 1.234달러로 전월보다 상승함
- 3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국제 무역분쟁 확산 우려,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 등으로 하락하여 106.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독일의 대연정 성사 등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sup>78)</sup> 등의 하락요인으로 전월과 같은 1.234달러임

77) 유로존 2017년 4분기 성장률: +2.5%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유로존 2018년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1.2%(YoY), 종합PMI는 58.6으로 상승

78) 유로존 3월 종합PMI(55.3)를 비롯하여 소비자신뢰, 경기체감 등 심리지표 부진

## 〈주가〉

■ 2018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497.37보다 하락한 평균 2,472.91임(〈그림 5〉참고)

- 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기업실적 개선, 미국 증시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치<sup>79)</sup>를 기록하며 전월 평균주가지수 2,467.73보다 상승한 2,520.94를 나타냄
- 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439.10으로 미국 등 글로벌 증시 하락,<sup>80)</sup> 외국인 순매도<sup>81)</sup> 등의 영향으로 1월에 비해 하락함
- 3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451.57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 완화, 남북 정상회담 일정 확정에 따른 북한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함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79) 2018년 1월 29일 2,598.19를 기록함

80) 월초 대비 미국 Dow 8.9%, 유로 STOXX 7.0%, 일본 Nikkei 9.9%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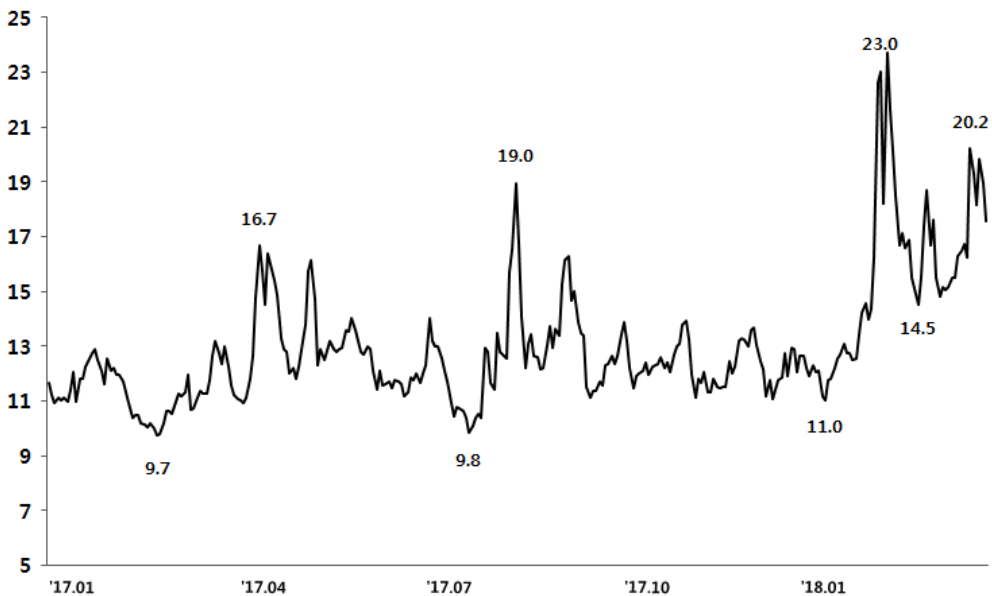
81) 2018년 2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는 약 1조 5,600억 원임

■ 2018년 1/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는 미국 증시 급락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우려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6> 참고)

○ 2월에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변동성지수는 2년여 만에 최고치인 23.0을 기록함

○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무역전쟁을 선포한 23일 20.2까지 상승 후 여전히 17~18대를 오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보험주가〉

■ 2018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21,561.79보다 하락한 21,023.69임 (<그림 7> 참고)

○ 장기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부진한 4/4분기 실적, IFRS 17 등 제도변화에 따른 적정자본수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보험지수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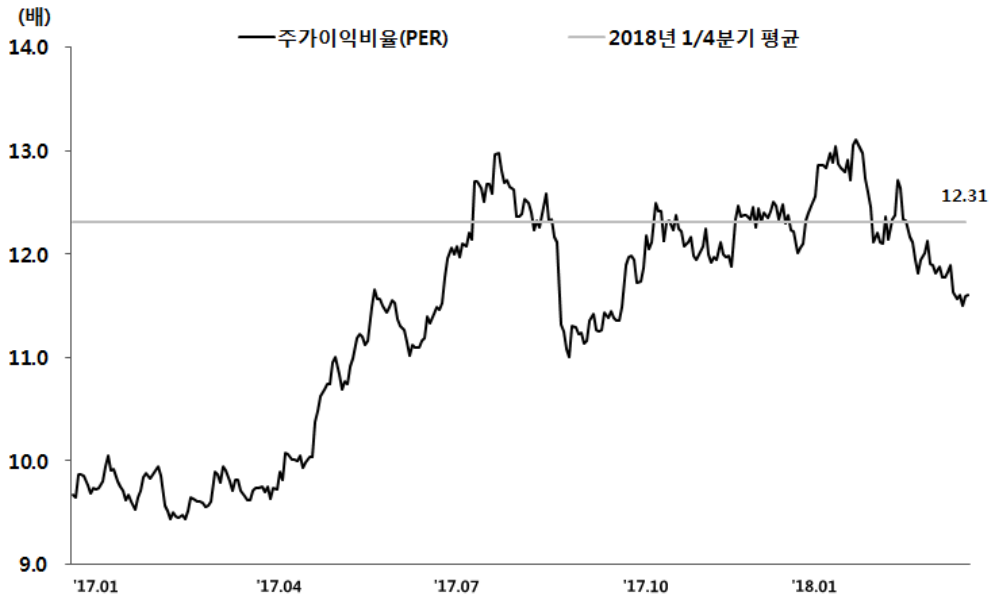
〈그림 7〉 KOSPI 보험지수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8년 1/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은 12.31로 전분기 평균 12.17에 비하여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86로 전분기 평균인 0.89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참고)
- 주가이익률(PER)은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여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보험지수의 하락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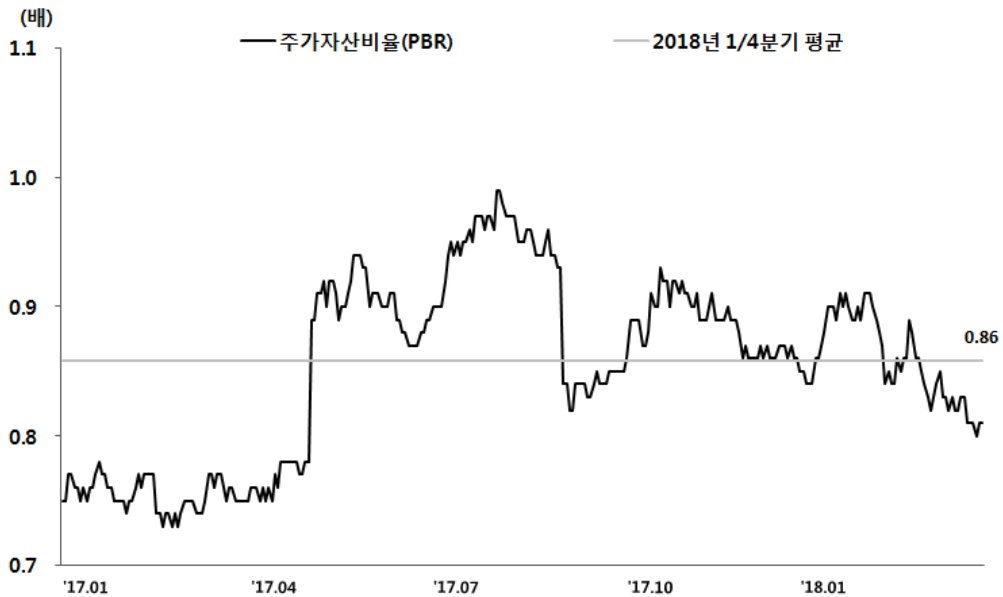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8년 1/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8년 1/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